

2008 새해실례 ⑩

어머니폴리스 연합대장 김미경

“아동상대 강력범죄 더 이상은 안돼”

어머니폴리스 포천시연합대 616명 활동 나서

어머니폴리스 연합대(연합대장 김미경)가 2008년4월30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포천 관내 616명의 어머니로 구성된 어머니폴리스 연합대는 아동범죄예방차원에서 순찰활동에 적극 나서는 등 목적에 부합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주로 하교시간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물론 지역의 자율방범대와 지구대 및 파출소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 연합대장으로 선출된 김미경 대장은 “영북면 어머니폴리스 대장으로 선출돼 각 읍면동

대장이 모인 가운데 연합대장으로 선출됐다”며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이 위협에 처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영북면 어머니폴리스의 활동을 강화해 다른 읍면동의 모델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북면 어머니폴리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조직을 강화하고 해야 할 임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처음 시작하는 단체의 연합대장으로서는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

은 것은 “우리 모두가 아버지가 고 어머니라는 생각으로 주변의 아동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밝히고 “어머니폴리스가 시민들의 협조를 구할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포천신문에 바라는 사항은 “처음 창립한 단체로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활동할 때마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적극적으로 보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라며 “이렇게 함으로써 어머니폴리스에게는 용기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위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연합대장은 “어머니폴리스는 단체가 창립된 것이 어찌된 우리사회의 모순이라고 생각한다”며 “강력범죄가 이제 아동들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불행한 일이라며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더 이상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춘계수련대회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단장 박혜자) 춘계수련대회가 5월13일 강화 석모도에서 개최됐다. 이날 춘계수련대회 글짓기 대회에 참가한 작품중에서 시 두편을 게재하여 역사 기록으로 삼고 후기를 받아 편집한다.

〈편집자주〉

눈썹바위에서

하늘의 시샘으로
가랑비가 흩뿌리던 설레임의 여행길

내리는 가랑비도 날려 버릴 듯
주부명예기자단의 진주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도착한 석모도.

커다란 배가 우리들을 통째로 삼기고
도착한 보문사의 경건함이 나를 감싼다.

힘겹게 올라 당신품에 안기어
비바다 본 인천 바다속에 제 마음속
번뇌를 털어놔니다.

오르는 계단마다 꽃들이 방긋이 웃길래
왜일까? 했는데 당신께 울라보니 그 뜻을 알겠습

니다.
바다를 다니다가 힘들면 쉬라고
군데군데 쉼터를 만드시고
살아온 세월 기록하다. 선한 미
소로 바라보시고
쉬었다 가라 미풍불어 땀을 식히시니
바다의 상큼함으로 마음을 채웁니다.

이래서 올 수 밖에 없군요.
이렇듯 편안하고 상큼한 당신의 손길이기에도...

당신마음 가득 담고 가는 이마음.
삶의 한 여정속에서
당신마음 담을 수 있었던
무자녀 5월13일 소중히 접어 두렵니다.



용경자
주부명예기자단 이사

달팽이

보문사 휘날리는 연등 품에 안고
두려움에 움츠린 달팽이
들 틈 사이 구부러진 소나무
이끼 킨 달팽이 뒤에 숨었다.

거친 숨 몰아쉬며 가파른 계단 오르니
비바람 막아주는 눈썹바위 나를 반긴다.

관음보살상 삼배 올리니 불어오는
솔바람에
발그레한 달팽이 송골송골 맺은
땀방울 식혀준다.



이은미
주부명예기자단 이사

5월의 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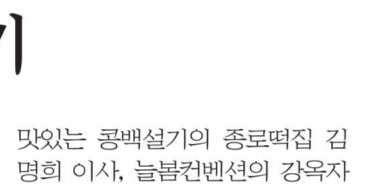
주부명예기자단 수련회 준비로 조금은 분주하다. 텔레비전에서는 비가 온다는 반감지 않은 소식이다. 영어나 소홀함이 있을까 싶어서 반찬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만들어 준비했다. 제법 뽀얀 솜씨인데 맛이 있을지 걱정이다.

몇 시간도 채 안되게 눈을 붙이고 새벽 5시 기상. 여기 저기 전화를 걸어 기상을 알리고 함께들 모여서 짐을 챙겨 차에 오른다.

드디어 출발. 행선지는 가까운 인근지역 강화 석모도 보문사 절이다. 차안에서는 각자 개인 5분 스피치와 덕담 한마디로 인사를 나누고 목적지에 도착. 날씨가 쓸쓸스러운 탓인지 조금은 쌀쌀하고 보습비가 내린다. 혹시나 물러서 준비한 우비를 건네고 맛있는 식사시간이다. 아침 일찍 출발한 탓에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이다. 서로를 협조하여 금방 잔칫상처럼 상다리가 부러지고 영종면 지부 정준옥 주부명예기자님이 후원한 구수한 황태국 코다리찌국은 일품 요리이다.

나 역시 준비한 별미요리 13가지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주부명예기자단의 찬사에 더 없는 보람을 느꼈다. 식사 후 눈썹바위 보문사 정경 관람. 하나씩 쥐어든 S4용지에 정성스레 써 내려간 글짓기 속에는 1시간 정도의 시간에도 골짜기 써 내려간 작은 정성의 1/2, 글 쓰는 모습조차가 아름다운 고 품격 격조 높은 주부명예기자단 자체였다.

얼마나 모범 되고 열정 또한 하늘을 찌르고, 산수를 무대로 달콤한 인생 로맨스이기도 서슴지 않던 김기호 고문, 웃음치료의 김순희 부단장, 세상이 변해도 사랑은 그대로의 순정과 송미령 총무.



박혜자
주부명예기자단 단장

맛있는 풍백살기의 종로떡집 김명희 이사, 늘봄컨설팅의 강옥자 이사님, 영종 면지부 과복준 지부장, 영북면지부 강기숙 지부장님의 푸짐한 후원은 오월의 향기를 더해주었다.

일일이 소개 할 수는 없으나 가장실력, 글 솜씨는 전국 어느 곳에 가더라도 단연 1등이다. 유창한 말솜씨로 자기소개, 살아온 시절은 추억을 뒤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서로를 알리기에 충분 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끔 인생의 아름다운, 담소 나눌 수 있는, 가슴 뭉클한, 거품나기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

포천신문을 알고 주부명예기자로 활동하면서 웃을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용경자 감사님의 가슴 가득 채우는 정겨운 행복감의 심정을 털어놓을 때에 김영복 편집국장님의 효소와 대표이사 최호열 회장님의 하늘같은 사랑이 아닌가 싶다.

늘려만 볼 빛을 발 할 수 있는 의연하고 지혜로운 주부명예기자단이 될 것을 다짐해 보며 참여해 준 우리 주부명예기자님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주부명예기자님들, 작은 일에도 행복할 수 있는, 비를 함께 맞을 수 있는 그런 주부명예기자단이 되길 기원합니다.

인천 연안부두의 싱싱한 회로 차려진 푸짐한 저녁 식사와 처음처럼의 공명은 말로는 형언 할 수가 없다. 우리의 단합,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파이팅!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단장

안개처럼 스며드는 기억의 파편

강화도는 나에게 있어 유달리 추억이 많은 곳이다. 벌써 10년은 지난 것 같다. 토요일 저녁 모든 일을 끝내고 잠이 들면 다음날 새벽 2시쯤 남편은 나를 흔들어 깨웠다.

일어나서 여행 가자고, 나는 일어나기 싫어서 짜증을 부러보지만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 내키지 않는 발걸음을 떼곤 했다. 어둠과 캄캄한 새벽녘을 달려 도착한 곳은 늘 강화도였다.

강화도에서 배를 타고 석모도로 들어가 한적한 해안도로를 달리다 보면 아침해가 떠오르는 풍경이 보게 된다.

이글이글 떠오르는 태양이 새벽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검푸른 바다 위를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탁 트이는 시원함과 함께, 내가 태양 속으로 마치 오리온의 화살처럼 주욱 빨려 들어가는 듯한 착각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한순간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에 빠져 나는 새벽잠을 설치고 나온 피곤함을 잊고 감탄사를 연발하곤 했다.

“나오길 잘했지?” 남편의 한 마디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했다. 그렇게 서너 번은 강화도엔 다녀간 것 같다.

석모도를 돌아보고, 어떤 때엔 마니산과 전등사, 어떤 때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겪은 격전지와 갯벌을 돌아보기도 했다.

대원군의 해국정적으로 인해 서양 열강의 침범을 받을 때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지역 강화도에서 남편의 조상이 열심히 싸운 공적을 인

정받아 ‘강화 척사비’를 받으셨단다.

그것을 찾아야 한다며 남편은 자신의 뿌리 찾기에 매달리듯 나를 따라 강화도 이곳 저곳을 누비고 다녔었다.

남편의 그러한 명분을 말할 길이 없는 나는 남편이 하지는 대로 따라다니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늘 생활에 찌들어 힘들게 살아가는 아내에게 단 둘만의 오붓한 여행으로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주려는 배려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이 떨어져 눈이 침침해진 탓으로 장거리 운전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행은 생각을 못하고 있다.

그런 남편과의 추억이 서려있는 이곳 강화도에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이 순회를 온 것이다. 돌아보는 곳마다 남편의 손길, 숨결이 안 닿은 곳이 없는 이곳에서 나는 남편의 체취를 내삼 느끼게 된다.

부슬부슬 내리는 빗속을 달리는 버스 안에서 각자의 인생이야기를 진솔하게 펼쳐놓는 모습에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즐거움에 손뼉치며 웃을 짓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인다.

오늘 수련회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 또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리고 즐거운 이야기거리로 남기를 기대한다.

서해안의 석모도를 다녀와서...

용경자 주부명예기자단

누구나 하면서 내심 부럽기도 했다. 어떤 사람이든 살아온 삶은 어느 누군가에게는 감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주먹같은 주부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동안 모두의 순서가 다 끝나기도 전에 석모도로 향하는 큰 배 앞에 도착했다. 거대한 배가 우리들의 차를 삼키고 석모도를 향해 바다 위를 달렸다. “바다 속에 커다란 배가 있고 그 속에 많은 차들이 있고 그 차 안에 내가 있고... 내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주를 넣을 수도 대자연속의 티끌일 수도 있는 생각에 잠시 잠겨보기도 했다.

물길을 달려 섬에 도착해보니 주변은 우리들을 기다린 듯한 여러 곳의 횃집과 할머니들의 좌판이 있었다. 비가 내리는 관계로 나가산 횃집에서 자리를 빌려 단장님과 여러 단원 분들이 준비해 오신 음식으로 점심 만찬을 즐겼다. 결집인 원회순남의 포도주는 음식 맛과 여행지에서 흥을 살리는데 한 몫을 한다.

“위하여!” 라는 목소리가 우리들을 한바탕으로 만들었고 점심 식사가 끝나자 완만한 경사의 보문사 행궁이 이어졌다. 차를 타고 편안히 경치 감상을 하는 것도 좋지만 만찬에 이어 삼삼 오오 짝을 지어 보문사로 향하는 발걸음에 허물없는 대화와 오가는 그것 또한 여행의 즐거움이라. 남편 흥도 보고 자식 자랑도 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

누며 오르다보니 가파른 호흡과 땀방울이 온몸에 맺힌다. 평소에는 운동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였다.

비가 내려서인지 보문사의 분위기는 사뭇 엄숙했고 수많은 연등이 연화시중의 미소로 우리들을 반겼다. 큰 바위 속을 파서 암자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안에서 들어가 보니 가히 사람의 기술력과 부처님의 불심이 큰 우주를 형성해 놓은 듯했다. 그 곳에서 조용히 삼배를 드렸다.

“잠시 이 세상에 왔으니 부처님의 뜻을 따라 살다 갈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암자에서 나와 보문사를 돌아보니 왕복20분 거리에 눈썹바위라는 명소가 있다고 한다.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힘들더라도 가 봐야 후회하지 않겠지, 하며 무거운 살들을 이끌고 계단을 오른다. 세월 속에 남은 것은 북부비만과 늘어지는 근육이니 털어 내지 못하는 나약함에 한숨만 나올 뿐이다.

힘겹게 올라 눈썹바위 앞에서 석모도의 절경을 바라보노라니 흰겨웠던 한숨이 한순간에 날아간다. 가파른 산 아래 잔잔히 피어있는 꽃과 나무를 그리고 바위, 시원스레 펼쳐지는 서해바다의 잔잔한 물결, 군데군데만 들어 놓은 듯한 나무가 있는 정원 같은 쉼터. 눈썹바위에 서서 나는 아래 펼쳐진 모든 절경의 주인공양 가슴이 벅차 올랐다. 역시 절경이었다. 그 감동을 간

직하기 위해 사진을 찍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해산을 시작했다.

일정에 의해 다시 버스를 달려 인천의 어시장에 도착했다. 내리는 빗속에서 빼곡히 들어찬 생선과 횃집들, 큰놈, 작은놈, 말린놈, 절인놈, 양념된놈, 아직 살이 있는 놈 등 형형색색 눈부시게 가득 차 있어서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를 지경이다. 동네 마트에 비하면 가격이 저렴하고 무엇보다도 싱싱하다는 점에 모두들 지갑을 열었다. 역시 주부다운 탁월한 선택이다. 그 곳에서 회를 떠서 저녁식사를 하고 소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고 소리쳐본다.

저녁 6시 이젠 보금자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 마법에 의해 왕자님을 만나 춤을 추다가 12시가 되어 돌아가야만 하는 운명의 신데렐라처럼 내리는 빗물이 처창에 주룩주룩 흘러내렸다. 돌아오는 차안에서 노래방 기계의 도움으로 춤과 노래가 어우러지며 돌아가는 시간은 짧기만 하다.

하루 여정으로 다녀온 여행 길이었지만 많은 절경과 감동을 담고 돌아오는 발걸음에 웬지 1등 성적표를 받아들이고 집에 들어가 자랑하고픈 학생의 마음이다.

이번 여행을 통해 소중한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주선해주신 포천신문사 가족 모두분들과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겠다. 그리고 또 다른 다음 여행을 위해 집으로 돌아가 아래로써 엄마르셨고 그리고 며느리로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욕심을 가져본다.

월빙

부사의(不思意)

사유(思惟)와 표현(表現) 50

일상생활(日常生活)에서 우리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간다. 대화(對話)를 하면서 살아간다. 말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의미(意味)를 주고받는다는 것이다. 말 솜씨가 중요(重要)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의미가 지배(支配)하기 때문이다. 청산수(靑山流水)처럼 아무리 말을 잘 하더라도 그 말에 핵심이 없으면 귀 기울이지 않는다.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들을 가치(價値)가 없기 때문이다. 대화에서 만 그런 것이 아니다.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이다. 글을 쓸 때도 의미가 중요하다. 신중(慎重)하게 글을 써야 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나는 학생들에게 말한다. “쓰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다. 덮어놓고 쓰지 말고 생각하는 다음에 쓰라. 생각은 많이 하되 표현

생각을 바로 하고 마음을 바로 써야 한다

은 절제(節制)하라.” 말도 마친 가지이다. 불쑥불쑥 던지지 말고 생각을 정리한 후에 말해야 한다. 말을 하던 글을 쓰던 일단 외부로 표현(表現)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말미오 글이기 때문이다. 말을 삼가고 표현을 삼가 해야 하는 이유이다.

“표현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 무엇이 대해 말하고 무엇에 대해 쓸 것인가를 먼저 결정(決定)해야 한다. 그 무엇이 분명치 않으면 다시 생각해야 한다. 키워드(key word)가 떠오르지 않으면 다시 생각해야 한다. 생각이 될 뉘었다는 신호(信號)이기 때문이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 무엇에 대해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것인가를 정하고 그 수만큼 키워드를 뽑아내야 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키워드를 말의 첫머리나 인덴트(indent) 첫머리에 놓도록 한다. 인덴트란 신문에서 보는 것처럼 들여쓰기를 말하는 것이다.

영어로 I discuss, you speculate, he gossips이라는 말이 있다. 나는 얘기하는데 네가 상상하고 그가 퍼뜨린다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대로 들어주고 내가 의도한 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말이란 이처럼 하기도 힘들지만

알아듣기도 힘든 것이다. 그래서 현인(賢人)들은 호연지기(浩然之氣)를 논할 때 지언(知言)이 중요하다 말한다. 지언이란 말하는 의도(意圖)를 알아차린다는 것이다. 행간(行間)의 의미를 읽는다는 것이다. 말하는 의도를 알아차리고 행간의 의미를 읽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이다.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把握)한다는 것이다.

말은 ‘마음의 소리’이다. 글은 ‘생각의 소리’이다. 생각을 바로 하고 마음을 바로 써야 한다. 빼어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빼땀하게 보이고 색안경(色眼鏡)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온통 물들어 보이고 때문이다. 색안경을 벗어 던지고 깨끗한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한다. 마음이 옹기 못한 사람이 말을 하면 한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이것을 바로 고쳐야 한다. 더 정도가 심하게 되면 음사(淫辭)가 된다. 음란함이 지나치면 바른 말은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이것을 사사(邪辭)라 한다. 간사함이 지나치면 앞서는 저러하던 것이 오히려 이렇게 변한다. 이것을 말러 둔사(遁辭)라 한다. 내가 하는 말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 자문(自問)해볼 일이다.



이규임
인문형성제작사의 명예회장

요즈음은 자기광고(自己廣告) 시대라고 하여 ‘침묵(沈默)’은 글이 아닌 말이 곧 잘 부정된다. 침묵은 금이라는 말은 필요(必要)할 때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말을 삼가라는 것이다. 말을 많이 할수록 수가 막히기 때문이다. 말을 많이 하면 책임(責任)이 뒤따른다.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책무(責務)가 늘어나고 행동반경(行動半徑)이 좁아진다. 따라서 자신의 수가 공(窮)해진다. 다언수공(多言數窮)이란 말은 그래서 소중한 것이다.

말 한마디에 천양 빛을 갖는다는 말이 있다. 고운 말을 써야 하는 이유이고 고운 마음씨를 지녀야 하는 이유이다. 매사에 너 때문에 하지 말고 네 덕분에 라고 말하라. 덕분에 라는 말이 마술을 부릴 것이다. 덕분에 라는 말 한 마디가 당신의 인생행로(人生行路)를 바꿔놓 것이다. 한번 시도(試圖)해보기 바란다.